소소하면서도 특별한…올해 마지막 날은 공연으로

'ACC 제야콘서트'
'웅산' '브라소닛 빅밴드' 무대에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
양림동 오거리서 등 평화 공연

2019년 한 해의 마지막을 판소리와 재즈 등 문화·예술공연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어떨까.

'2019 ACC 제야콘서트'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1에서 열린다.

올해 다섯번째로 열리는 제야콘서트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올 한 해 예술극장 제작 작품을 갈라 공연으로 선보여 2019년을 되돌아보며 2부는 '희망'과 '새로움'이 가득한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는 신나는 축제의 밤으로 꾸며진다.

1부 첫 무대는 소리꾼과 고수가 모여 만든 판소리 창작 그룹 입과손스튜디오가 미얀마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네개의 꼭두각시'로 꾸민다. 이어 이날치가 ACC 제작 작품인 애니메이션 음악극 '드라곤 킹' 중 '범 내려온다', '좌우나졸', '일개한퇴',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를 무대에 올린다. '드라곤 킹'은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하나인 '수궁가'(水宮歌)와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작품이다. 이날치는 프로듀서 장영규와 베이스 정중엽, 드럼 이철희를 비롯해 소리꾼 권송희·박수범·신유진·안이호·이나래 등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브라소닛 빅밴드

2부의 시작은 브라소닛 빅밴드가 알린다. 'Jazz Police', 'Song for bilbao', 'Over the rainbow'등을 무대에 올린다. 신현필이 지휘하는 브라소닛 빅밴드는 리듬파트와 색소폰, 트롬본, 트럼펫 등으로 구성된 밴드로 2015년도에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 및 초청공연을 하며 활동중이다.

이어 컨템포러리 재즈 아티스트이자 색소포니스트 대니 정(Danny Jung)이 'Run for Cover', 'Smile', 'September'를 선보인다.

공연의 대미는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이 장식한다. 'Moanin', 'I put a spell on you', 'Yesterday', 'Volare' 등을 부르며 마무리한다. 웅산은 1996년 데뷔 이후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음악방송 MC 등으로 활동중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웅산

빅맨싱어즈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이하 '로드런')이 평화의 노래 '길을 열어' 공연을 31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림오거리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로드런'이 주관하며 가수, 시인, 화가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평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평화의 노래', '길을 여는 詩', '작가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가수 김원중, 바닥프로젝트, 빅맨싱어즈 등이 팝페라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시인 박관서가 시낭송을, 화가 주홍이 드로잉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로드런'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공연을 열고, 여기에 참가한 시민의 호응과 열기를 바탕으로 휴전선~북녘땅~유라시아대륙을 잇는 평화 길 조성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수상자 발표
예술대상에 채춘례씨·박은영 시인

채춘례 씨

박은영 시인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회장 임원식) 2019년 광주예술문화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문화상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2019년 광주예총 예술대상에는 채춘례 씨(절시구학당 원장), 박은영 시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강영숙 씨(가수), 문명호 서양화가, 범진석 사진작가, 조선하 씨(드림무용학원장)가 선정됐으며 예술상에는 강현우 음악협회 사무국장, 공성술 씨(마나스튜디오 대표), 공진희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외래강사, 이기선 씨(가수), 이명수 씨(정인엔지니어링), 박애화 씨(광주시립창극단), 박정기 씨(연극인), 정영법 건축가, 정서현 시인이 각각 뽑혔다. 아울러 특별상에는 이순옥 광주예총 시민예술대학장, 정승욱 광주예총 시민예술대학부학장이 선정됐다.

광주예총예술문화상은 광주예총 회원으로 우수한 예술창작 및 문화활동으로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대상과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화+레고 '깜짝'
이진상 개인전 31일까지 예술공간 집

'LEGO'

민화와 레고(LEGO)가 만났다.

이진상 작가 세번째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민화, LEGODT-민화, 재미있게 놀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그림이 현대민화"라고 생각하는 이 작가가 전통 민화에서 한발 벗어나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레고'라는 소재를 활용해 민화를 재해석해 본 전시다.

민화는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고 소장할 수 있는 그림이었기에 지금까지도 전통 민화에서 현대 민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 방식들로 재해석되면서 대중들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

전통 민화에 등장하는 꽃그림들은 비슷한 모양의 패턴들의 반복이다. 작가는 전통 민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을 단순화해 표현하고 전통적인 패턴을 활용했다. 레고 몸통 속에 들어있는 펜 그림의 패턴은 민화의 자연과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끌어왔고. 레고는 작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회화적 리듬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작가는 '레고'를 인간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탐욕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인간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고자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소재로 해석했다. 아이나 어른 모두 좋아하는 레고는 장난감을 넘어 순수를 갈망하는 마음까지도 아우르는 물건이라는 설명이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수료한 이 작가는 '母夢(모몽)', 'BEYOND THE ART'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화·서양화·공예… '예술길을 그리다'
'예술의 거리 작가회' 1월7일까지 무등갤러리

최재영 작 'Festival'

광주 예술의 거리는 광주 문화예술이 집약된 공간이다. 갤러리, 화방 등이 몰려 있고 무엇보다 회화, 미디어 아트,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의 거리 랜드마크 역할을 할 미로센터가 문을 열었고 갤러리 관선재도 오픈하는 등 조금씩 활력을 띠고 있다.

이곳에 작업실을 둔 작가들은 2017년 '예술의 거리 작가회'(회장 최재영)를 조직하고 그해 첫번째 그룹전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예술의 거리 갤러리 4곳에서 야간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미로센터와의 아트 콜라보 작업으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이미지로 스카프, 핸드폰 케이스 등 아트상품 디자인 작업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 예술의 거리 작가회가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2020년 1월 7일까지 기획전을 연다.

'예술길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전체 26명 회원 중 24명이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예술의 거리 터줏대감인 오건탁·박지택·유수종·최향·이성임(향담갤러리 관장)등 중견 작가부터 정다와·김선미 등 30~40대 작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조근호·한승희·정해영·진시영·강남구·김병택 작가 등도 작품을 내놓았다. 또 호남 최초의 도자기 명장 김옥수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으며 50호 크기의 대작과 함께 선물용으로 2~3호 크기의 소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2019 무등갤러리작가 지원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행사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발전협의회
'21세기 광주·전남' 87호 발간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재순)가 발간하는 '21세기 광주·전남' 87호가 나왔다.

우담 이부재 작가의 작품을 표지화로 실은 이번 호에서는 '의향 광주와 학생독립운동'(김성), '멕시코와 쿠바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와 후원'(김재기) 등으로 구성된 특집 기획 '민족 정기와 호남'이 눈에 띈다. '서재필의 개화사상'(정진석)과 '사회개혁과 민족운동의 선각자 오방 최흥종'(한규무)을 다룬 또 다른 특집 '한국 개화사상과 선각자들-광주·전남 출신 중심으로'도 의미있는 기획이다.

21세기 갤러리에서는 올해 35회를 맞은 무등미술대전 입상작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화 부문 대상작 '遊'(손승연), 서양화 부문 대상작 '기억의 잔상'(김계영) 등 1459점 중에서 선정된 8개 부문 대상작을 실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와 가고시마 미술교류전 소식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교류전은 올해 가고시마 시립미술관에서 열렸으며 교류전 내용과 함께 심수관 도요지,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등으로 이어진 문화 기행 현장은 서양화가 박영진 작가의 그림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 주왕산과 하회마을 탐방기, 영국 문화여행기 등도 담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